

과테말라와 멕시코의 민속의상 위필(Huipil)에 관한 고찰

Traditional Clothes in Mexico and Guatemala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김희정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Lecturer : Hee-Jung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과테말라와 멕시코의 위필(Huipil) 비교 |
| II. 과테말라와 멕시코의 지리적·문화적 특성 | V. 결론 |
| III. 위필(Huipil)의 형태와 문양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determine the forms, patterns and structures of Huipils as traditional clothes in Guatemala and Mexico, and to cite possibilities of applying the findings of the study, acquired by comparing the differences of the two countries' Huipils, to textile or costume design.

There are two types of Huipils. One is for everyday wear and another one is for special occasion. The latter is bigger in size, more colorful and is worn on top of the daily use Huipil.

Huipils consist of 1 to 3 panels, and are usually made by weaving rectangular cloth which has 4 selvages. There are various neckline such as — type, T type, I type, round type and square type. The types of the neckline depends on how many panels are used.

The Mexican Huipils are worn usually over skirts, whereas the Huipils of Guatemalans are practically designed with white cotton that doesn't have any patterns so as to be easily put into skirts.

Different from Mexicans' Huipils which mainly show big botanical patterns, the patterns of Guatemalans' Huipils combine animals, plants and abstract concepts display mixed aspects, and it seems to me that they expressed their emotions and dearest wishes.

주제어(Key Words): 민속의상(traditional clothes), 위필(Huipil), 과테말라와 멕시코(Guatemala and Mexico)

Corresponding Author: Hee-Jung Kim,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317-609 Jukong Apt. Chang-dong Dobong-gu, Seoul, Korea Tel: 82-2-998-8117 E-mail: heejee05@hanmail.net

1. 서론

인류는 오랜 역사와 자연환경을 통해서 각 민족 나름대로의 전통적인 문화와 풍물 그리고 고유사상을 지녔으며 각 지역의 민속의상은 의복 자체의 고유성과 착용방식에 의한 표현방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민족의상은 문화양식에 뿌리를 둔 인간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인간의 본성과 생활조건인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적 상황, 인위적인 제도, 정책, 태도, 의식, 사회관습과 상징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표현된 것이다.

특히 직물은 생활 속에 존재하며 그 자체 내에서 미(美)를 산출하는 것으로 문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도구가 되는데 과테말라와 멕시코 등 인접지역들은 일찍이 마야문명이라는 하나의 문화권으로 묶여서 비슷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다. 마야인들에게 직물은 단순히 공예품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는데 이는 모든 직물들이 역사이자 문화이기 때문이다.

중남미의 의상은 관두의를 원형으로 한 것이 많은데 관두의란 장방형 혹은 원형의 옷감 중앙에 머리 넣을 구멍을 뚫거나 2장의 직사각형 천의 상단을 머리 넣을 구멍만 남기고 징거 입을 방식의 의상을 말한다. 신체의 요철부분을 이용하는 착장법으로 입고 벗기 용이하며 구멍의 크기를 입는 사람에 맞춰 뚫어서 그 옷의 소유자가 확실시된다. 중남미 나라들은 고지대에 있고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해가 지고 난 후 추워지는 독특한 기후를 관두의로 체온조절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착용하지 않을 때는 솔이나 모자, 무릎덮개, 모포, 인테리어 용품 등으로 이용한다.

멕시코와 과테말라에는 50~60종류의 민속의상이 있어서 일상복과 축제 시 착용되는데 관두의 형태로서의 위필(huipil)은 본래 멕시코 등에서 인디언과 농부가 착용하던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과테말라와 멕시코의 민속의상으로서 위필의 형태, 문양, 조직 등을 문헌과 유물을 통해 분석하고 아울러 두 나라 위필의 차이를 비교·고찰하며 그 미적 가치를 토대로 현대의 텍스타일 디자인이나 의상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는 용

용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멕시코와 과테말라의 직물에 관한 박물관 자료집, 문화 역사 기록물을 통해 크기나 형태, 소재, 조직 등의 특징을 분석하고, 사진이나 그림, 관련 사이트 자료를 수집하여 문양과 색상 등을 파악하고 비교하였다. 과테말라의 경우 현존하는 대부분의 직물은 19세기 후반부터 수집되어 보존된 20세기의 것이며 본 논문에서 연구대상이 된 것은 대영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90개의 위필과 기타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하였다.

II. 과테말라와 멕시코의 지리적·문화적 특성

두 나라는 다양한 지형과 기후로 인해 강하고 신축성이 있는 섬유를 함유한 각종 나무나 관목 및 식물이 많이 자라고 있어 일찍부터 직조가 풍요롭게 행하여졌다.

고대 나와뜰어로 과테말라의 어원이 되는 구와히테말라(guahitemala)는 '많은 나무의 땅'이라는 뜻이다. 사실 과테말라의 60% 이상이 숲이며 그 숲에는 8천여 종의 식물이 사는데 특히 옥수수, 콩, 호박, 고추, 면화, 카카오, 바닐라, 아보카도, 파빠야, 구아바 등은 세계적으로 전파되었으며 옥수수, 콩, 호박은 마야공동체 시대부터 경작된 것이다.

또한 훼손되지 않은 숲에는 19종의 앵무새, 54종의 벌새, 과테말라 상징 새 꾀찰을 비롯한 주둥이가 예쁜새 투칸(toucan) 등 664종의 새, 퓨마와 재규어, 긴 손 원숭이를 비롯한 250종의 포유류, 인어라고 불리는 마나티(manatee), 악어, 뱀, 거북, 도마뱀 등 232종의 파충류, 블루 모르피(blue morph) 나비 등 수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다.

멕시코는 원주민이 전체의 30%, 원주민과 유럽인의 혼혈인 메스티조(mestizo)가 주류를 이루며, 과테말라의 경우 400만명 이상의 원주민과 44%의 메스티조가 있다. 현재 과테말라에는 언어와 관습에서 완전히 특성을 달리하는 23개의 원주민 부족들이 산재하여 살고 있다.

대부분의 원주민은 아메리카의 3대 문명인 아즈텍

(Azteca)문명, 마야(Maya)문명, 잉카(Inka)문명에서 생활했으며 마야문명은 건축과 천문학이 발달하였고 종교의 영향이 매우 중요했다. 마야인들은 다신을 숭배하고 자신들이 동물, 식물, 별의 후예라고 생각했으며 그러한 믿음 때문에 같은 동물, 식물, 혹은 별의 후예들끼리 모여 살았다. 또한 이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신은 죽음의 신이며 태양신, 바람신, 비의 신도 숭상했으며 방적과 직조를 발명한 예술의 여신(Xochiquetzal)에 의해 보살핌을 받는다고 믿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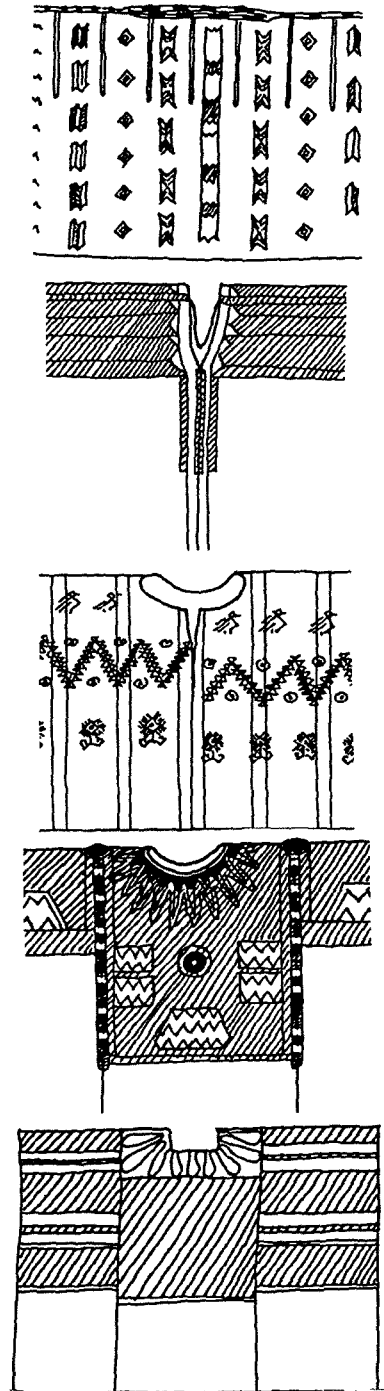
III. 위펠(Huipil)의 형태와 문양

여성들이 블라우스 대신 입는 직사각형의 위펠은 약 300개가 넘는 디자인이 있으며 일상용과 의례용이 따로 있는데 하나의 위펠을 제작하는데 5~8개월 정도가 걸린다. 특별한 날 착용하는 의례용 위펠은 일상용 위펠보다 크기가 더 크고, 디자인과 사용되는 실이 화려하며 일상의 위펠 위에 착용한다.

1. 형태

위펠은 1~3개의 패널로 만들어지는데 1장의 직물로 만들어지는 위펠은 대개 보트 넥(boat neck) 스타일로 구성되며 옆선은 팔을 넣을 수 있는 구멍만 남기고 바느질하고 다른 한편은 팔이 나올 수 있도록 직물을 자른 후 연결 시 장식적인 바느질을 한다. 2장의 긴 직사각형 직물을 연결시켜서 만들어지는 경우는 연결 시 수직성이 강조되며 중심 부분은 연결하지 않아 머리가 들어갈 구멍으로 사용한다. 한편 3장의 패널을 연결하여 만들어지는 위펠은 중앙 패널에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라운드나 스퀘어 형태로 잘라내어 만들게 된다(그림 1).

응용형으로는 옆선봉제의 유무, 별도의 천으로 소매와 칼라를 붙이는지, 소매의 길고 짧음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십자(十字)형태로 구성된 위펠은 입는 사람으로 하여금 씨족상징의 여러 가지 모티브에 둘러싸여 우주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하는 의미를 주기도 한다.



◁그림 1> Neck Line의 종류

1) 멕시코 위필의 형태

멕시코 위필의 단서는 후고전기(900~1520년)에 서부지대에 게레로(Guerrero)州 치라파(Chilapa)에서 발견되었다.

멕시코의 여성들은 판초 스타일의 위필과 마름모 케이프 형태의 케스케미틀(quechquemittl)을 랩 스커트(Warp skirt)와 함께 입는데 별로 길지 않은 것은 치마 위로 입고 치마를 입지 않았을 때는 자연스럽게 늘어뜨린다. 케스케미틀은 귀족여성과 여신이 나타난 그림에서 볼 수 있으며 하류층 여성들은 세 개의 좁은 조각들을 연결한 위필을 입었다.

현재의 의상은 토착 인디오가 답습한 것, 메스티조가 만들어낸 독자의 것과 프린트와 무지의 목면을 모던하게 디자인한 것 등 3가지 스타일이 있으며 스페인 등장 이후 유럽의 영향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이는 날실 이카트천의 술 달림에서 알 수 있다.

멕시코에서 위필은 대부분 길이보다 폭이 길고 성인용 위필은 길이가 가장 짧은 13인치부터 60인치의 축제용이 있으며 넓이도 18~51인치까지 다양하다.

2) 과테말라 위필의 형태

과테말라의 전통복식은 마야시대의 복식에서 유래되는데 先고전기(~A.D300)의 동상에서 여성은 위필과 스커트를, 남성은 로인 클로스(Loincloths), 벨트, 위필, 샌들 등을 이용한 흔적이 보인다. 이는 다른 중미 지역과 위필의 형태도 서로 비슷하고 백스트랩식으로 전통직조를 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멕시코羈의 인접 국가들과 같은 문화를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 8세기경 부조에서는 귀부인이 착용한 다이아몬드 무늬의 위필을 볼 수 있다(그림 2).

스페인 점령기에 여자 복식은 위필에 감아 입는 스커트를 입고 머리장식 끈과 벨트, 어깨걸이의 조합으로 마야시대 복식이 그대로 유지된 반면 남성들은 외부 문화의 영향을 받아 바지와 셔츠, 추테(Tzute, 머리를 감싸는 천조각), 양모코트, 자켓 등이 나타난다.

과테말라의 위필은 1~3장의 패널로 연결되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란다(randa)라는 좁은 테이프로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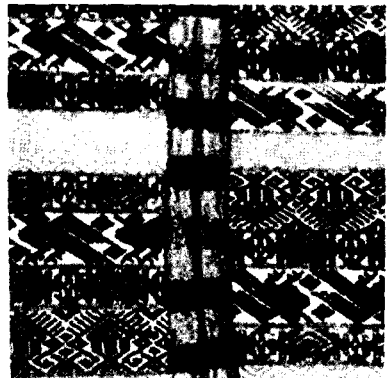
결 부위를 장식하기도 한다(그림 3).

위필의 종류 중 소브르위필(sobrehuipil)은 일상의 위필 위에 입는 것으로 축제나 행진에 참가하기 위해 여성들을 초대하는 날과 같이 특별한 날에만 착용하는 매우 큰 크기의 위필이며 양 옆선은 봉제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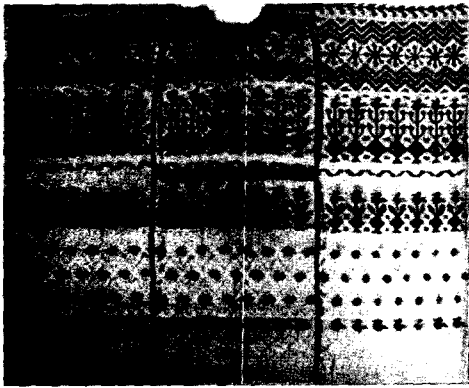
지역에 따라 보여지는 특징적인 것으로는 궤찰테낭고(Quezaltenango) 지역의 베일 용도로 사용하는 큰 위필(그림 4)이나 산 크리스토팔 토토니카판(San cristobal totonicapàn) 지역의 고라(gola)라는 러프 목장식이 있는 위필, 치치카스테낭고(Chichicastenango)



〈그림 2〉 8세기 마야의복



〈그림 3〉 란다(randa)로 연결된 위필



<그림 4> 빼일로 쓰는 머슬린 타입의 위필

의 펼쳐면 브로케딩 부분이 십자가 모양이며 등근 목선 주위의 아플리케가 태양빛을 상징하는 위필 등이 있다.

안띠꾸아(Antigua)에서 행해지는 코프라디아(cofradía)라는 종교 의례식에는 모든 성당과 거리가 꽃과 리본으로 예쁘게 단장하고 도로 위에는 여러 가지 색으로 물들인 톱밥가루, 꽃, 나뭇가지, 색종이 등으로 용단처럼 아름다운 무늬로 바닥을 치장한다. 이를 카펫이라는 뜻의 알포브라스(Alfombras)라고 하며 이 꽃길을 예수의 상징인 예수스 코르푸스(Jesus Corpus: 금으로 만든 예수의 상징)를 든 주교와 수많은 인파가 밟고 지나가는 의식을 벌이는데 성체 행렬이 지나갈 자리에 꽃 대신 위필을 깔기도 하여 위필은 의상의 용도 외에 의례용으로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5).

2. 문양

위필을 만드는 사람 고유의 위필이 되게 하는 것은 색과 디자인 뿐 만이 아니라 수를 놓고 직조하는 방법에 달려있다.

위필에는 마야 신화에 바탕을 둔 동물, 사람, 식물, 신 등 300개가 넘는 독특한 디자인이 있으며 도안은 모두 수작업으로 직조하거나 수를 놓는다. 각각의 공동체마다 대표하는 상징이 있으며 일상용과 의례용이 따로 있다.



<그림 5> 안띠꾸아 성지의 기념일

1) 멕시코의 문양

멕시코의 직물에서 보이는 모티브들은 초자연적인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힘을 가진 고대신앙의 상징적 경향을 보여주며 조형적으로 연속문 형태를 취하는데 이는 고대 상징물에 대한 숭배를 의미하며 한편으로는 빈 공간에 대한 예술의욕의 표현이기도 하다.

선(先)스페인기에는 기하학적 문양, 양식화된 동물, 조류, 식물, 인물, 기호 등이 사용되었고 고대 마야 문명기에는 45°대각선이 기하학적인 요소와 함께 사용되었다. 또한 상형문자, 기하학적 문양, 괴물상, 초자연적인 상상물, 밀립의 조류, 원숭이, 표범 등의 동물과 날개 달린 뱀(Quetzalcoatl)을 신성시하여 디자인에 사용하였다. 특히 아즈텍기에는 정형화된 동·식물과 연속적인 번개문양과 삼각의 모티브 등의 기하학적 모티브가 사용되었는데 원숭이 모티브가 가장 많이 퍼졌고 푸른 에벨레(Xonecuilli)와 머리가 두 개 달린 독수리도 있다.

멕시코를 중심으로 발달했던 페오피우아칸인의 예술품에서 재규어는 토양의 풍족함을 상징했으며 마야인에게는 죽음과 용기를 상징했다.

문양의 소재는 단일 특성을 가지기보다는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동·식물 뿐 만 아니라 추상적인 모티브가 대다수이며 이를 통하여 그들의 감정표시와 염원을 담아 표현해왔던 것이다. 주제가 강조되지

위하여 다양한 크기, 색상 및 배치 등의 변화를 통해 장식하는데, 주로 원근법이 사라지고 상징적 표현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기하학적인 문양은 가장 원시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존재로 공간을 채우기 위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연속적인 삼각모티프는 태양신에서 튀어나온 혀를 상징하는 태양광선, 불의 뱀 등으로 불리어졌고, 너문(Greca)은 폭넓게 사용되는 모티프로 번개형상의 모티프가 변형된 것인데 아름다움, 풍부함, 화려함을 상징한다. 갈지자 문양(Chevron)은 W문양으로서 다채색으로 표현되며, 별 문양은 유럽풍의 디자인이 퍼져 있는 지역에서 사용되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토토 프라워(toto flower)로 도식화되거나 태양을 포함하기도 한다.

우기(雨期)에 자라는 하얀 토토꽃은 옥수수의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니며 멕시코의 위출(Huichol)지역에서는 기쁨을 상징하며 위필의 상·하부 자수에 자주 이용된다.

조류는 불의 신을 상징하며 종류에 따라서 각각의 다른 신과 연계되어 있다고 믿었는데 어린 옥수수를 지켜준다고 믿은 독수리는 불의 조상신에 속하고 칠면조는 태양신에 속한다고 여겼으며 악을 상징하는 것으로 기원된 머리 두 개 달린 독수리 문양은 대중적인 면에서 다양하고 장식적인 것으로 애용되고 있으며 인디오 사회의 최상류 계급의 상징물로서 인정되고 있다.

또한 나무 위에 앉은 새의 문양은 마야인들의 상징으로 보이며 의식용 위필과 세례복에 사용되었으며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과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뱀은 어느 문화권에서나 거대한 재생의 상징으로 나타나며 식물이 싹트는 땅속에서 기어나오기 때문에 땅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멕시코에서 뱀은 천둥 번개와 강을 의미하며 원숭이는 신의 보호자로 여겼고 동쪽을 상징한다. 재규어는 전사를 상징하는 강한 동물로 받아 들여졌으며 비와 물을 다스리는 신성한 존재로인 반재규어이 존재하였다.

푸른에벌레(Xonecuilli)는 서있거나 S자로 기댄 형태로 7개의 별로 구성된 별자리를 상징화한 것이며 휘출(Huichol)족, 휴스텍(Huastec)족, 시난텍

(Chinantec)족의 의상에서 보인다.

멕시코의 일상용 위필은 축제용보다 장식이 없고 색도 복잡하지 않으며 혼례용은 신인동형적(神人同形的)인, 기하학적인, 수형신(獸形神)의 디자인이 보인다.

인물문양은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나 여성의 모습이 남성의 모습보다 더 많이 나타나며 멕시코에서는 주로 신인동형적(神人同形)적이며 다양한 포즈가 패턴화 되었다.

2) 과테말라의 문양

현란한 색채와 독특한 문양으로 유명한 과테말라의 위필은 부족마다 고유의 색상과 문양으로 위필 만으로도 부족간의 구분이 가능하다. 과테말라의 위필에는 줄무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등장하며 다음으로는 삼각형과 다이아몬드, 갈지자 모양 등의 기하학적 문양이 많다.

산 안토니오 아구아스 깔리엔테스(San Antonio Aguas Calientes)는 화려한 꽃무늬에 깨찰 새문양이 유명하고, 전통이 강한 치치카스페낭고(chichicastenango)는 사각으로 파인 목 부분에 태양과 햇살을 상징화한 기하학적인 도안, 수닐(zunil)은 3~21가지의 풍부한 색상을 세로로 염색하여 만든 문양, 산따 까말리나 빨로보(Santa Catarina Palopó)는 붉거나 흰 바탕에 사람이나 동물을 단순화한 기하학적인 문양 등 각각의 전통적인 도안이 있다.

또한 토토니카판(Totonicapán)지역의 인형문양, 네베(Nebaj) 지역의 마주보고 있는 두 새의 옆 모습, 나후아라(Nahualá) 지역의 반인반재규어무늬, 안티구아(Antigua) 지역의 대칭형공작새, 산 페드로 사카테페케즈(San Pedro Sacatepequez) 지역의 신성 시되는 케이폭 나무 등은 특징적인 문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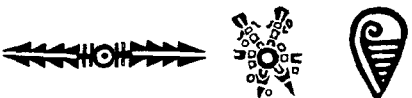

깨찰(quetzal)이라는 새는 마야와 과테말라의 국조(國鳥)로 아주 양중맞은 크기의 몸통에 비해 70cm에 이르는 두 개의 긴 꼬리 깃털로 우아한 자태를 지녔다. 부드러운 깃털의 에메랄드색 머리와 선명한 붉은 가슴, 무지개 빛으로 반짝이는 긴 꼬리 깃털은 그 고귀함으로 인해 권력의 상징으로서 마야의 전사와 왕만이 장식으로 쓸 수 있다. 깨찰의 뿔 깃털은 다시 나는데 이런 이유로 깨찰은 부의

원천이자 자유를 상징하며 상류층 의상에 있어서 중요하게 쓰였다.

과테말라의 번개문은 가장 폭 넓게 사용된 것 중의 하나로 주로 삼각문, 십자형과 함께 사용되며 지그재그 문양은 생식력, 풍요의 상징이며 가로방향의

지그재그는 산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지그재그무늬는 성직자들이 높은 성전에 가기위해 오르던 가파른 길을 나타내는데 그 길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직선으로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마름모는 생산과 풍요의 여신을 상징하며 지구를 형상화한

〈표 1〉 문양의 종류

멕시코		과테말라	
<p>연속삼각문, 번개문, 갈지자문, 푸른에벨레(S자)</p> <p>기하학적 문양</p>  <p>연속삼각문 갈지자문 나선형</p>	<p>번개문, 마름모, 육각형, 줄무늬, 삼각형, 십자문, 갈지자(chevron), 물방울, 소용돌이, 알파벳(X S N O M W I)</p> <p>기하학적 문양</p>  <p>번개문 마름모 갈지자</p>		
<p>악어, 도마뱀, 원숭이, 재규어, 독수리, 말, 노새, 양, 사슴, 염소, 개, 비둘기, 칠면조, 오리, 갈매기, 페리칸, 앵무새, 개구리, 뱀, 말뚝가리새, 올빼미, 꿩, 왜가리</p> <p>동물문양</p>  <p>도마뱀 독수리 개구리 뱀</p>	<p>뱀, 사슴, 토끼, 개, 원숭이, 재규어, 머리 둘 달린 독수리, 말, 양, 사슴, 염소, 비둘기, 칠면조, 오리, 갈매기, 페리칸, 앵무새, 긴꼬리 게칼, 공작, 나비, 부엉이, 닭, 깃털 있는 뱀, 주머니쥐</p> <p>동물문양</p>  <p>사슴 독수리 게칼 부엉이</p>		
<p>풀, 갈대, 꽃, 옥수수, 고사리, 꽃, 나뭇잎, 선인장</p> <p>식물문양</p>  <p>고사리 꽃 나뭇잎</p>	<p>새가 얹은 나무(생명수), 꽃병의 화려한 식물, 갈대, 풀, 피네토(pinetto, 작은소나무), 옥수수, 장미, 케이폭나무</p> <p>식물문양</p>  <p>생명수 피네토 장미 케이폭나무</p>		
<p>두개골 모양, 바람의 신, 비의 신, 늙은 신</p> <p>인물문양</p>  <p>두개골 바람의 신 비의 신</p>	<p>반수반인(재규어+인간), 춤추는 사람, 인형무늬</p> <p>인물문양</p>  <p>반수반인 춤추는 사람</p>		
<p>기호문양, 화살, 시간, 바다조개, 별</p> <p>기타</p>  <p>기호문양 화살 바다조개</p>	<p>항아리 모양(하프모양), 작은별, 8자모양</p> <p>기타</p>  <p>항아리 모양 8자모양</p>		

것이라 여겼는데 네 귀통이는 하늘과 옥수수 밭의 네 귀통이와 일치한다고 믿었다.

자연문양 중 나무위에 앉은 새 문양은 생명수(生命樹)로 의례적인 위필과 세례복에 사용되며 생명수 위의 새는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과 연결된 것이며, 케이폭 나무(*ceiba tree*)는 의례용 위필의 가슴부분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초기의 주제는 깨찰, 머리 둘 달린 독수리(*kot*)를 나타냈으나 1960년대 나옴된 자수무늬가 유행하자 추상무늬 대신 커다란 꽃무늬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1970년대에 이르면 직조자들이 자수무늬 책자에서 모방한 꽃무늬와 동물무늬를 혼합하여 사용하기 시작한다.

3. 조직

위필은 백스트랩 직기(*backstrap loom, girdle-back, waist loom*)를 사용하여 끈고 길게 짜여진 직물을 그대로 둘러 입는 매우 간단한 튜닉형태인데 이는 천을 짤 때 미리 그 용도와 치수에 맞추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재단을 따로 할 필요 없이 직조기에서 천을 떼어내어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기원전 200년경에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백스트랩 직기는 간단한 구조의 원시적인 직기인것에 비해 그것에 의해 표현된 직조예술은 단순함에서 정교함에 이르기까지 그 창조적인 미적 가치가 뛰어나다.

백스트랩 직기는 로프(*rope*), 두 개의 말코(*end bar*), 백스트랩(*backstrap*), 쉬드 롤(*shed roll*), 잉아대(*heald rods*), 두 개의 누름대(*batten*), 북(*bobbin*), 재양틀(*tenter*), 크로스바(*cloth bar*), 사침대 (*lease rod*) 등으로 구성되는데 백스트랩은 직기의 이름을 유래시키는 등뒤의 편평한 가죽 띠를 가리키며, 직조자의 허리를 지탱하여 경사의 장력을 조절하게 된다. 한쪽은 말뚝이나 기둥에 연결하고 다른 한편은 허리에 걸치고 앉은 채로 짜기 때문에 쓰지 않을 때는 공간이 필요 없어 보관이 수월한 특징이 있다.

백스트랩 직기로 짠 직물은 경사도투마리에 긴 경사를 감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백스트랩 직기로 4 변폭(*selvage*)의 직물을 짜는 것이 가능하며 다양한 기

능을 연출할 수 있어 직조자의 능력에 따라서는 매우 복잡한 직물도 짤 수 있다.

1) 멕시코의 조직

멕시코 원주민의 직물은 자카텐코(*Zacatenco*)에서 기원전 2000년경에 최초의 방적이 이루어 졌고 기원전 1500년경부터 백스트랩 직기 형태를 통한 아름답고 복잡한 직물이 제작되었는데 이러한 선고전기와 기원전 1521~1820년의 스페인 정복기, 20세기의 독립기로 나뉘어 질만큼 역사적 변천과정이 오래된 것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하여 전통성과 미적 가치를 지녔다.

멕시코 원주민의 직물문화는 15세기에 이르러 절정에 이르렀으나 1519년 스페인에 의해 정복되면서 스페인의 풍속이 보급되고 문화의 독자성을 잃게 되어 순수한 인디오 문화에서 혼혈문화로 전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색상, 양식화, 직조술, 의상 착장법 등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는데 위필의 계보는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새로운 소재로 나옴직물과 레이스, 리본, 등의 상업적 직물이 널리 이용되었다.

대부분 옥외에서 이루어지는 멕시코의 직물은 단순한 직기로 자유롭게 제작되며 조형적인 측면에서 독자적인 특성을 지니는데 기법상으로 거즈(*Gauze*) 직, 평직, 능직 등의 기본직과 오픈 워크(*Open Work*) 직, 리브(*Rib*) 직, 크레페(*Crepe*) 직, 플로트(*Float*) 직 커브(*Curved*) 직, 이중직등 변화적으로 다양하게 시도되었고 이외에도 자수, 매듭, 염색 등이 사용되어 직물표현의 다양함을 보여준다.

평직은 숄과 스커트에 사용되는 줄무늬 패턴을 주로 만들며 두꺼운 실이나 추가 위사를 사용해 특색 있는 밴드를 만든다. 또한 오토미(*Otomí*)와 휘출(*Huichol*) 지역의 직조자들은 이중직으로 좋은 천 벨트와 가방을 만들며, 능직은 모직 스커트와 작은 담요를 패턴화 하는 데도 유용하다. 나후아(*Nahua*) 여성들은 말을 타고 가는 사람과 머리가 둘 달린 새의 무늬가 있는 거즈 조직의 케스케미틀을 입고 있으며 산 파블리토(*San pablito*) 지역에서는 루프를 형성하는 공급위사를 끌어당기는 위사로프조직을 사

용하여 머리 둘 달린 독수리와 8포인트 별모양을 만들기도 한다.

2) 과테말라의 조직

과테말라에서 백스트랩직은 마야문명 시대에 발생하였으며 변화속도가 느리고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는 고지대에는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직조기술은 지리적인 특성과 직접 관계가 있는데 시에라마들레(Sierramadre) 산맥을 중심으로 높은 봉우리와 아름다운 호수로 둘러 싸여 있는 자연적 조건으로 외부와 격리되어 전통적인 직조기술을 보존하게 된 것이다.

과테말라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마야의 후손들은 아직도 전통을 고집스레 지켜나가는데 여자들은 대개 7, 8세가 되면 직조 기술을 배우며, 마을마다 손에 익어 내려오는 무늬를 단순히 기억 하나에 의존해서 일일이 무늬와 색을 넣어 짜서 입고 그 기술을 딸들에게 물려준다.

과테말라에서는 정경(整經)대를 사용하여 필요한 경사의 길이와 줄 수를 순서대로 맞춰 직조 준비를 하는데 지역에 따라 정경이 끝나면 직기에 걸기 전에 수축방지를 위해 옥수수를 반죽하여 넣은 뜨거운 물을 이용하여 경사를 강하게 하는 사이징(sizing)을 하기도 한다.

과테말라 직물의 직조방법은 특별위사(Extra-weights)를 넣어 짜는데 특별위사 방법을 포함하여 몇 가지 종류의 패턴이 있다.

경사줄무늬는 경사표면을 갖는 직조물에서 보이며 주로 반대되는 색을 사용하여 줄무늬를 표현한다. 경사줄무늬는 경사 표면 중 홀수 경사와 짝수 경사의 색이 같은 경우는 경사 줄무늬 차이가 나지 않아 구별이 안되는 반면, 홀수 경사가 흰색이고 짝수 경사가 검은 색인 경우와 같이 두 색이 다른 경우에는 긴 줄무늬로 나타난다. 이 경사 줄무늬는 지역에 따라 인기 있는 색 조합이 있는데 예를 들어 토도스 산토스 추추마탄(Todos Santos Cuchumatán), 휴후테낭고(Huehuetenango)지역 등에서는 흰색과 빨간색의 조합이 일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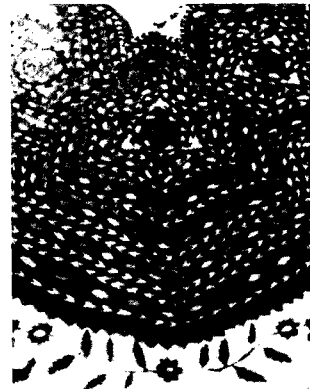
바탕 직물이 경사표면이며 특별위사가 직물의 앞

면을 지나가면 '플로트(float)' 라고 한다. 경사 플로트(warp float)는 처음에는 단순한 기하학적 문양을 많이 사용했지만 새, 나비, 꽃, 인간 등의 문양을 디자인해서 장식함으로서 다양한 소재를 표현하게 되었다. 위사줄무늬(평직)는 위사표면 직물에서 효과적으로 보이며 위사 길이 전체에 걸쳐 경사 사이의 빈 공간을 통하여 위사가 보인다.

브로케딩(Brocading)은 과테말라의 직물을 장식하는 가장 보편적인 기법으로 여러 가지 다른 색의 위사를 직조과정 중간에 추가로 삽입하는 특별위사 기법의 하나이므로 특별위사를 제거해도 바탕직물은 손상되지 않는다. 매우 조밀하게 모든 표면에 장식되는 위필의 경우 몇 달 이상의 제작기간이 요구되며 초기의 위필일수록 브로케딩이 드물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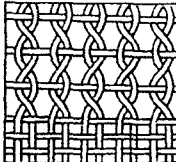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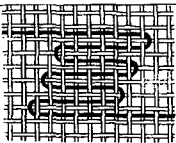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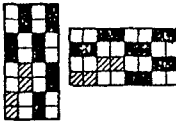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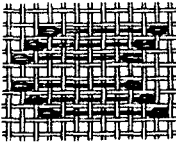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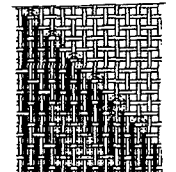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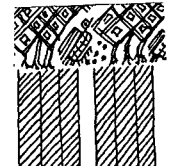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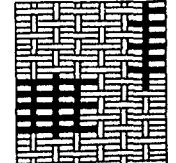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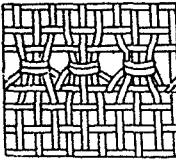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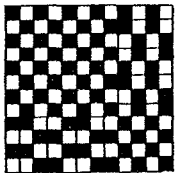
또한 이카트(Ikat) 모양의 모티브는 경사, 위사, 또는 양자 어느 경우이나 강한 색의 줄무늬로 배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카트를 야스페(jaspe)라고도 부르는데 이카트 문양이 물들여진 실타래를 다른 마을에 팔기도 한다. 백스트랩 직기에서 짜여지는 이카트 천은 대부분의 문양이 직기 상에서 조절되어 최종적으로 완성되지만 보다 복잡한 모티브는 묶음 공정의 첫 단계에서 대강의 스케치에 의해 염색된다.

직조 후에 하는 자수에서도 그들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모티브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새틴 스티치, 루프드(looped) 스티치, 코우칭(couching) 스티치 등으로 장식된다(그림 6).



〈그림 6〉 지수장식된 위필

〈표 2〉 조직의 종류

멕시코		과테말라	
<p>거어직(Gauze)- 평직과 조합된 가장 일반적인 조직으로 경·위사가 성글게 교차되어 바람이 잘 통하고 시원하여 습기가 많고 더운 지역의 의복에서 발견된다.</p>		<p>브로케딩(Brocading)-단면 브로드케딩과 양면 브로드케딩이 있으며 불연속적인 특별위사는 자유로운 무늬를 짜는데 수월하다.</p>	
<p>평직(Tabby)- 평직의 변화적으로는 평조직의 교차점을 경위사방향으로 두둑한 효과를 내는 이랑 조직(rib weave)과 물결모양의 주름지고 오글조글한 표면효과와 크레이프직(crepe)이 있다.</p>		<p>위사줄무늬(West stripe)- 위사 줄무늬는 많은 수의 위사가 경사의 빈 공간을 통해 길이로 나타나게 되는 형태이다.</p>	
<p>플로트직(Float weave)- 변화평직으로 경사나위사나 바탕직물에서 떠있는 조직을 말한다.</p>		<p>경사 플로트(Warp Floats)-주로 여성용 벨트를 장식하는데 쓰여진 듯하다.</p>	
<p>능직(twill weave)- 평직에 비해 치밀하고 유연하며 케스케미틀제작도 사용된다.</p>		<p>경사줄무늬(Warp stripe)- 보통 1인치당 50~60개 이상의 경사가 쓰이며 경사표면을 갖는 직물에서 나타난다.</p>	
<p>이중직- 바탕과 모티브의 색이 앞, 뒷면 다르게 나타나는 직물로 두 개의 경사층을 이룬다.</p>		<p>랩직- 특별위사가 선택된 몇 개의 위사를 휘감거나 고리가 되게 만든다.</p>	
<p>위·경사 오픈워크(West-warp open work)- 한가닥 혹은 여러 가닥의 위사가 경사를 둘러 감싼 형태로 조직에 공간이 생겨 평직의 단조로움을 줄인다.</p>		<p>복합직- 특별한 직조기술로 윗면과 아랫면이 서로 다른 기법을 써서 짜여지는 기법이다.</p>	

4. 소재

직물과 의복자체의 장식을 더 중시하는 원주민들은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산악지대 사람들은 라마(Lama), 알파카(alpaca), 뷔꾸냐(vicuna) 같은 동물들의 털을

이용하고, 해안지방 사람들은 목화를 재배해서 목화솜으로 옷을 짜 입었다.

라마는 남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짐을 운반하는데 사용되었던 동물로 털 색깔이 다양하며 알파카는 털을 얻기 위해 기르는 것으로 고동색, 회색, 검은색도 있지만 주로 색깔은 하얗고 털이 가늘고 윤

기가 나서 양털보다 고급 소재로 평가된다. 또한 뷔꾸냐의 털은 세상에서 가장 질이 좋은 섬유로 잉카 시대에는 오직 왕과 측근만이 뷔꾸냐 털로 짠 옷을 입을 수 있었다.

이렇게 신분과 직위에 대한 서열은 직물에 의해서 구분되었는데 왕족·귀족·제사장·특권계층은 가장 훌륭한 코튼과 깃털이나 금속이 장식된 직물을 독점했으며 평민들은 용설란 같은 튼튼하고 질긴 식물성섬유를 사용하였다. 흰색 면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섬유이며 갈색 면은 드물며 가격도 높았다.

특색있는 것으로 멕시코 테완테펙(Tehuantepec)의 자포텍(Zapotec)의 축제용 여성의상 중 검정 벨벳에 아름다운 자수가 있는 위필은 중국의 영향인지 수입 솔의 카피인지 칼라플한 견사로 자수된 커다란 꽃무늬 장식이 있다(그림 7).

과테말라 직물의 재료는 면, 마, 실크, 모 등의 천연재료가 주재료였으며 대부분 직접 방적하였으나 20세기가 되어서 면사, 실크사, 아크릴사등의 상업용사가 나타남으로써 대부분의 직조공들이 염색된 실로 직조하게 되었다. 다른 실에 비해 면사의 종류가 많은 것을 보면 면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그림 7〉 벨벳소재의 위필

수 있으며 면사마다 특징이 있어 짜여진 직물이 어느 지역의 것인지 알 수 있다(표 3).

과테말라의 상업용 면사에는 단사, 이합사, 삼합사가 있는데 이합사는 꼬이거나 엉키지 않게 처리하여 수축이 적으며, 삼합사는 강도가 이합사보다 더 센 것이어서 벨트나 머리띠 등 튼튼한 것을 만들 때나 특별 위사로 쓰인다.

식민지 시대 동안 소개되었던 양모와 아시아 실

〈표 3〉 소재의 종류

종 류	멕시코	과테말라
식물성 소 재	Cotton-先 스페인기의 가장 중요한 소재로 열대지역의 백색과 황색변종은 멕시코가 원산지이다.	면-Todos San Juan Atitan, San Sebastian Huehuetenango, Chiche 등에서 생산되어 공급된다.
	Ixtle-특색 있는 섬유소재로 용설란의 넓은 잎에서 얻어지며 특성상 평민 의복에 주로 사용된다.	용설란-끈이나 로프, 가방 등을 만들 때 쓰며 옷감으로는 잘 쓰이지 않는다.
	Pita-일명 Aloe섬유라고도하며 아게이브 아프리카나 잎에서 채취	마
	Yucca, Chichicastle, 양물푸레나 무, 갈대, 종려나무잎 등	상업용 면사
동물성 소 재	teasel-매우 부드럽고 광택 있는 토끼 머리털로 '지구의 실크'로 미화되어 불린다.	모
	Feather-밝게 염색된 열대조류들의 깃털로 장식적·보온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아크릴모사
	silks-16세기에 실크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며 디자인 강조를 위해 부분적으로 사용되었다.	실크-가격이 비싸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의식용의 옷을 만들 때만 쓰고 브로케이드에 조금 들어간다.
	Wool-라마, 알파카, 비큐냐에서 얻어진 우수한 염색성과 보온성, 견고성을 갖춘 소재이다.	

크는 폭넓은 인기를 얻었으며 근대에 와서 과테말라와 멕시코에서 낄실 이카트와 씨실 이카트, 복합 이카트가 만들어지고 있고, 목면이 주종을 이루며 견과 레이온도 사용하고 있으나 점차 아크릴과 레이온 같은 합성섬유로 대체되고 있다.

전통 직물에 있어서 색상은 특정한 신을 상징하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다. 또한 각 인디오마다 고유한 해석이 있어 가령 검정은 무기와 전쟁, 노란색은 익은 곡식, 붉은색은 피, 푸른색은 신성의 상징을 의미하였으며 흰색은 동(東), 일몰, 풍요, 음식을 뜻했다.

자연염료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코치닐은 가정에서 재배되었으며 쪽은 매우 보편화되었다. 서부 해안 인디언들은 커다란 자반병(紫斑病) 조개를 잡아서 입으로 붙여 생기는 우유와 같은 액체를 면사에 찍어서 사용하였다. 타이리언 퍼플(Tyrian purple)과 같은 색상은 태양빛을 사용하여 개발되었다. 채도가 높은 색상으로 염색된 실은 성직자 망토나 부유층의 휴가용 의상을 만드는 제직용이나 자수용으로 사용되었다.

직조 한 피스 당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자주색은 코스타리카(Costa Rica)나 니카라과(Nicaragua) 연안에서 발견되는 연체동물인 푸푸라(purpura)에서 뽑아내는데 이 색상은 다양한 종교적 기념일에 입혀지는 위필에 사용된다.

한편 멕시코 원주민의 직물에서 보이는 풍부한 색채는 주변의 대자연의 색채와 강렬한 태양빛의 조화로 원색적인 성격을 보이며 나뭇대로의 상징적

인 전통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대체로 식물성 염료는 식물의 뿌리, 줄기, 껍질과 열매에서 채취하며 동물성 염료는 벌레나 조개류에서 추출한다. 지배적인 색상은 빨강색과 노랑색이며 그 외의 파랑색, 자주색, 녹색등 다른 색은 대비될 경우에만 검소하게 사용된다. 1890년대 이후 화학염료가 소개되면서 천연 염료들은 아닐린 염료로 많이 대체되었으나 소수의 보수적인 원주민들은 아직도 전통적인 염료를 선호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염료와 상징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IV. 과테말라와 멕시코의 위필(Huipil) 비교

멕시코와 과테말라의 위필은 다양한 소재와 직조 방법을 사용하여 독자적인 섬유예술을 이루었는데 식민지 시대를 지나면서 자수와 레이스 기술이 도입되었고 멕시코 쪽으로 갈수록 레이스가 화려한 흰색 먼 블라우스에 색색의 수가 놓여있는 위필을 볼 수 있다.

멕시코와 과테말라의 위필은 서로 같은 형태를 하고 있어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지만 위필의 기원이나 외부세계의 영향, 문양과 색채, 조직과 장식기법, 소재 면에서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필의 기원면에서 멕시코의 경우 900~1520년에 해당하는 후 고전기에 위필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고 과테말라의 경우 300년경에 해당하는 선 고전기의 조각상에서 위필을 착용한 모습을 발견할

<표 4> 염료의 원료와 상징성

색 상	상 징	추 출 원
파 랑	남(南), 신성, 물, 땅, 하늘, 왕가의 혈통	쪽(anil), xigiolite(낭아초속의 식물), 사카틴타(sacatinta)
빨 강	서(西), 피, 생명, 빛, 태양의 나라	아치오페(achiote)나무와 열매, 조개분비물, 연지벌레, 사카틴타(sacatinta) 산성화
갈 색	대지	넨스(nance)나무의 표피, 알리소(aliso) 나무, 타페(toffee: 설탕과자)
녹 색	물, 식물, 부흥, 재생	큐큐마(curcuma)뿌리, 캄페체(campeche), 쪽(anil)
노 랑	익은 곡식(옥수수)	블랙베리(black-berry, 나무), 카모틸로(camotillo, 뿌리), 철산화물
자주색	최고의 영광, 위엄, 주권	연체동물 푸푸라(purpura)
검 정	북(北), 무기, 전쟁, 죽음, 어둠, 냉기	철산화물, 석고, 황토+요소

수 있어 과테말라의 착용시점이 앞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스페인의 통치로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 위필도 변화를 겪었는데 멕시코의 경우 나염직물, 레이스, 리본, 상업적 직물 등이 사용되었고 직기에서 떼어낸 사각형의 직물로만 제작되었던 의상에서 필요한 크기로 자르고 마름질하는 스페인식의 재단기술이 도입되었다. 과테말라의 경우 여성들의 의상이 고유한 위필형태가 유지된 반면 남성들은 고유양식에서 셔츠와 자켓 등으로 변화되었고 이카트 기법도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새틴, 런닝, 크로스 스티치 등의 자수로 의복을 강조 하는 것이 많은 지역에서 유행했다.

셋째, 형태면에서 멕시코의 위필은 길이보다 폭이 넓은 것이 대부분이고 쉬프트한 위필형태를 일반 하류층이 착용하는데 비해 귀족들은 마름모형의 케스케미틀을 착용한다.

과테말라의 위필은 일상용과 의례용, 혼례용 등의 구분이 있는데 보통 1~3장의 패널을 이용하여 구성되며 지역에 따라 보트 네크라인, 라운드 네크라인, 스퀘어 네크라인, T자형 네크라인, 중앙 솔기를 이용한 1자형 네크라인 등 다양한 형태가 보인다.

과테말라의 위필은 19세기 이후 너비가 길이의 두 배라는 특이한 비율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양 옆선이 모두 바느질된다.

넷째, 문양과 색상 면에서 보면 멕시코는 단일한 형태보다는 복합적인 양상이며 크기나 색상, 배치 등으로 주제를 강조하며 지배적인 색상은 빨강과 노란 색이며 문양에서는 푸른애벌레 문양, 신의 모습이 특징적이다. 반면 과테말라의 위필은 마야신화에 바탕을 둔 독특한 무늬와 현란한 색채로 각 지역마다 고유한 특색이 있으며 치마 속으로 넣어지는 하단부는 무늬 없는 흰색의 면으로 이루어져있는 실용성이 돋보인다. 빨간색과 흰색이 주로 사용되며 중앙 패널에 붉은 색이 많이 사용된다. 특색 있는 문양으로는 생명수, 피네토, 케이폭나무, 인형 무늬 등이 있다.

다섯째, 조직과 장식기법 면에서 보면 멕시코의 직물의 패턴은 직조기에서 패턴의 구성요소를 짜 넣는 유형과 직조기에서 직물을 분리시켜 패턴을

넣는 유형에 의해 이루어지며 장식적인 요소로는 브로케이드, 거어즈, 타피스트리, 경·위사 줄무늬, 자수, 염색(Tye dye, Ikat, Batik), 인장(印章)등을 사용하여 색보다도 직조 기술과 디자인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 반면 과테말라의 경우는 위사줄무늬, 경사줄무늬, 경사 플로트, 랩직, 복합직등 있는데 지역에 따라 인기 있는 경사줄무늬의 색 조합이 있으며 브로케이드가 가장 보편적인 직조기법이다.

여섯째, 소재 면에서 멕시코와 과테말라 모두 쉽게 구할 수 있는 식물성 소재와 동물성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특히 면과 모의 사용이 일반적이고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상업용 면사나 아크릴 모사 등을 쓰기도 한다.

V. 결론

현대문명의 영향으로 세계의 의상이 획일화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아 있는 민속의상은 토속적인 각 민족 특유의 스타일을 대두시켜서 특정민족의 독특한 생활감정과 민족성, 풍물들을 새롭게 해석하여 재현하고 있다.

그 중에서 독특한 무늬를 넣어 짠 1~3장의 패널로 만들어진 위필은 고대부터 현재까지 착용되고 있는 실용적이고 간편한 구성법의 특색 있는 민속 의상이다.

특히 과테말라와 멕시코의 위필은 색과 문양 면에서 뛰어나며 여러 가지 조직을 보이므로 두 나라의 위필을 비교·고찰해보는 것은 뜻깊은 일이다.

두 나라 모두 과거 스페인에게 정복되었는데 제일 빨리 정복자의 문화를 받아들인 수장층과는 달리 일반서민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관두형의 옷차림을 하였으며 스페인 정복이전에는 이카트 직물이 없었으나 초기 식민지 시대에는 기독교의 성자상에 입히는 의복으로 이카트 직물을 사용하였다는 보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새로운 소재가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문양면에서 보면 경사이카트, 위사이카트, 복합이카트를 만들고 있는데 화살무늬의 변형이나 장방형을 기본으로 하는 조합문양이 많으며 띠줄

속에 강한 색의 줄무늬로 배치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듯 과테말라와 멕시코는 스페인의 식민지를 거치면서 위펄의 소재면에서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한편, 의복에 보이는 많은 문양들은 신들과 인간에 대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어 직물의 디자인이나 형태는 개인의 주어진 역할과 지위를 암시할 뿐 만 아니라 민족의 특성까지도 구분해준다.

따라서 위펄에서 나타난 직물의 문양도 인간과 신(神)을 잇는 교량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풍부한 종교적인 내용과 함께 신비로운 상징적 표현이 보인다.

과테말라와 멕시코의 위펄에 등장하는 모티브들은 복합적으로 구성되었다는 특징이 있는데 동·식물 뿐 만 아니라 추상적인 소재가 결합되어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그들의 감정표현과 염원을 담아왔으며 각 지역마다 고유한 특색이 있다. 깨찰, 두 개의 머리를 가진 독수리, 번개, 옥수수, 재규어, 태양, 달 등이 수 놓아진 위펄에는 여성들의 우주에 대한 해석이 담겨 있기도 하다.

스페인 정복이전에는 식물과 동물 패턴을 양식화하고 기하학적 디자인을 사용하였는데 원숭이는 선호되는 모티브였으며 계단식의 너문과 삼각형도 자주 사용되었다. 스페인 정복이후에 새로이 개발된 모티브는 거의 없고 전통적 모티브의 상징성이 사라질 때까지 새로운 디자인과 전통적 디자인이 혼합되어 사용되었다.

조직면에서 보면 백스트랩에 의한 직조과정 자체로 많은 대각선 무늬를 얻게 되고 결과적으로 갈지자 모양이나 다이아몬드 무늬를 기본으로 하는 번개, 계단, 별 등의 브로케딩 문양이 생기게 되었다. 이 외에도 거어즈, 경·위사 줄무늬, 경사 플로트, 랩직, 복합직등이 있으며 자수와 염색으로 예술성을 더한다.

멕시코와 과테말라에서 이용되는 백스트랩 직기는 손으로 북이나 작은 막대 등의 도구를 써서 무늬를 짜야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려 상업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16세기이후 들어온 발틀직기에 뒤지기는 하지만 예술적인 면에서 볼 때는 여전히 손을 사용한 백스트랩 직기가 우수하다고 보인다.

이렇게 백스트랩 직기로 짜여진 직물로 만들어지는 다양한 패턴의 위펄은 각 지역 고유의 특색을 보이며, 자기 자신과 공동체 사회, 문화와 역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과테말라와 멕시코의 위펄은 그들의 주체성을 표현하는 훌륭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현대의 패션디자인 경향은 일반성보다 독특함을 추구하는데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민속의상의 모티브 만큼 좋은 소재는 없을 것이다. 동양적인 모티브에서, 아프리카적인 모티브를 거쳐 이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중남미의 민속의상에 눈을 돌릴 때이다.

과테말라와 멕시코의 민속복중에 하나인 위펄은 구성상의 단순함을 이용한 케이프디자인의 개발이나 원주민 고유의 색깔, 문양 등을 응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을 통해 개성 있는 현대 패션디자인으로의 응용이 가능하다.

■참고문헌

- 강문근(1995). 한국사람 중남미 가기. 서울: 정문문화사.
 강석영(1996). 라틴아메리카 史(상).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고혜선(1998). 메스티소의 나라들.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
 구자홍(1983). 직조기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병조(2003). 잉카속으로. 서울: 풀빛.
 김우택(2003).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와 문화. 서울: 소화.
 利根山光人(1972). 멕시코의 민藝. 東京: 平凡社.
 마스다 요시오, 심금순 역(2003). 이야기 라틴아메리카사. 서울: 심사.
 서지성(1997). 민속직물을 응용한 현대 텍스타일 디자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市田ひろみ(1998). 世界の衣裝をたずねて. 東京: 淡交社.
 A. 라시네 著, 石山 彰 監修(1977). 世界の服飾2 東京: マル.
 유선태(1995). 현대섬유예술의 이해. 서울: 미진사.
 이정화(1991). 멕시코인 인디안 직물에 관한 연구. 흥

- 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 흥(1991). 직조기를 이용한 직물구조의 기법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책 레네라센, 김수석 역(1993). 세계의 염색예술. 서울: 미진사.
- 田中千代(1986). 世界の民俗衣装. 東京: 平凡社.
- 정윤희(1993). 민속의상이 현대의상 디자인에 미친 영향. 효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지은(2002). 라틴문화여행. 서울: 일빛.
- 조르주 다나프, 김정란 역(1995). 상징·기호·표지. 서울: 열화당.
- 朝日新聞社 編(1986). 世界の衣裳.
- Jorge Enciso(1999). 멕시코 전통문양. 서울: 이종문화사.
- 존·헨더슨, 이남규 역(1999). 마야문명. 서울: 기린원.
- 増田義郎 編(1980). 世界の博物館 5 メキシコ 国立人類學博物館. 東京: 講談社.
- 최정연(1991). 과테말라 백스트랩직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Kax Wilson, 박남성, 차임선 역(2000). 직물의 역사. 서울: 예경.
- Ann Hecht (2001). *Guatemalan Textiles in the British Museum*. London: The British Museum.
- A. P. Row (1981). *A Century of Change in Guatemalan Textiles*. New York: Center for inter-American relations.
- Bertrand & Magne (1991). *The Textiles of Guatemala*.
- chlo Sayer (1985). *Costumes of Mexico*. London: Univrrsity of Texas press.
- Chlo Sayer (1995). *Art and Crafts of Mexico*. N.Y.: Thames & Hudson Ltd.
- Donald and Dorothy Cordry (1978). *Mexican Indian Costumes*. London: Uni. of Texax press.
- J. C. Cooper (1995). *An Illustrated Encyclopaedia of traditional symbols*. N.Y.: Thames & Hudson Ltd.
- Laura E. Start, M. ED. (1978). *The Mcdougall Collection of Indian Textiles from Guatemala Mexico*. University press Oxford.
- Lilly de J. Osborne (1975). *Indian Crafts of Guatemala & El Salvador*. Norman: University of Oklahom Press.
- Mary Miller & Karl Taube (1993). *The Gods and Symbol of Ancient Mexico and Maya*. N.Y.: Thames & Hudson Ltd.
- Norbert & Elizabeth Sperlich (1980). *Guatemalan Backstrap Wearing*. Norman: the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http://worldnet.kbs.co.kr/america/mexico/index.html>

(2004년 9월 2일 접수, 2004년 12월 28일 채택)